

스페인 "16강행"



우크라이나 "우리도 가능"

골든슈 주인공은?



<스페인 토레스>

2006 독일월드컵축구에서 특급 골잡이들의 득점왕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을 전망이다.
본선 32개 팀이 조별리그 2경기씩 치른 20일 현재 최다 득점자에게 주어지는 '골든슈' 경쟁을 보면 아직 선두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호각지세(互角之勢)이다.
페르난도 토레스(스페인)가 3골로 득점 선두에 오른 가운데 에르난 크레스포(아르헨티나), 아구스틴 델가도(에콰도르), 다비드 비아(스페인), 미로슬라프 클로제(독일), 토마시 로시츠키(체코) 등 2골을 넣은 선수가 10명이나 된다.
하지만 20일 오후 A조 독일-에콰도르전을 신호탄으로 각 팀이 본선 조별리그 3차전에 들어가면 득점왕 경쟁에 새로운

관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각각 특급 골잡이들은 이미 16강 탈락이 확정돼 후보 선수를 기용하는 등 승부욕이 떨어진 약팀을 만나면 골을 넣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특히 토너먼트로 치러지는 16강전부터는 각 팀의 전력의 엇비슷한데다 수비진의 집중력이 더해져 몰아치기 골은 어렵다. 때문에 마지막 남은 조별리그 한 경기가 득점왕 레이스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별리그 남은 경기를 살펴보면 페르난도 토레스(3골)와 다비드 비아(2골) 등 '무적함대' 스페인 공격수들이 한층 유리하다. 최전방 공격수인 둘은 조별리그 2차전에서 우크라이나에 0-4로 패해 16강 진출이 어렵게 된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하기 때문에 소나기골을 몰아칠

득점왕 레이스 본격 돌입
20일 현재 토레스 3골 '톱'
델가도·비아 등 1골차 추격

가능성이 충분하다.
반면 아르헨티나의 에르난 크레스포와 막시 로드리게스는 2골씩 기록하는 탁월한 골 감각을 보였지만 22일 C조 1위를 놓고 우승후보 네덜란드와 맞붙는다는 점이 다소 불리하다. 또 남미의 강호 에콰도르의 아구스틴 델가도도 독일의 미로슬라프 클로제는 20일 A조 1위를 놓고 격돌하기 때문에 추가골을 뽑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골씩을 기록 중인 오마르 브라보(멕시코)와 팀 케이힐(호주)도 각각 부당스런 포르투갈, 크로아티아와 경기를 남겨놓고 있고 체코의 토마시 로시츠키도 16강 진출을 놓고 '아주리군단' 이탈리아와 혈투를 벌여야 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006독일월드컵 각 조별 순위

6.20 오전 6시(한국시간) 현재 16강 진출 확정국 (각 조별 2위까지 16강 진출)

A조						B조					
순위	국가명	승	무	패	득실	순위	국가명	승	무	패	득실
1	에콰도르	2	0	0	5 0	1	잉글랜드	2	0	0	3 0
2	독일	2	0	0	5 2	2	스웨덴	1	1	0	1 0
3	폴란드	0	0	2	0 3	3	프랑스	0	1	1	0 2
4	코스타리카	0	0	2	2 7	4	파라과이	0	0	2	0 2

C조						D조					
순위	국가명	승	무	패	득실	순위	국가명	승	무	패	득실
1	아르헨티나	2	0	0	8 1	1	포르투갈	2	0	0	3 0
2	네덜란드	2	0	0	3 1	2	멕시코	1	1	0	3 1
3	코트디부아르	0	0	2	2 4	3	앙골라	0	1	1	0 1
4	세르비아인테그로	0	0	2	0 7	4	이란	0	0	2	1 5

E조						F조					
순위	국가명	승	무	패	득실	순위	국가명	승	무	패	득실
1	이탈리아	1	1	0	3 1	1	브라질	2	0	0	3 0
2	체코	1	0	1	3 2	2	호주	1	0	1	3 3
3	가나	1	0	1	2 2	3	크로아티아	0	1	1	0 1
4	미국	0	1	1	1 4	4	일본	0	1	1	1 3

G조						H조					
순위	국가명	승	무	패	득실	순위	국가명	승	무	패	득실
1	스위스	1	1	0	2 0	1	스페인	2	0	0	7 1
2	대한민국	1	1	0	3 2	2	우크라이나	1	0	1	4 4
3	프랑스	0	2	0	1 2	3	튀니지	0	1	1	3 5
4	토고	0	0	2	1 4	4	사우디아라비아	0	1	1	2 6

■ 주요 경기 결과

토레스 2골... 득점포 가동

스페인-튀니지 (3-1)

우크라이나-사우디 (4-0)

'무적함대' 스페인이 튀니지에 힘겨운 역전승을 거두며 독일월드컵 본선 16강에 진출했다.
같은 조의 우크라이나도 사우디아라비아를 대파하고 본선 첫 승과 함께 16강 진출의 불씨를 살렸다.
스페인 20일 폭우가 내리는 슈투트가르트에 고트리브 다임러 슈타디온에서 열린 H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전반 선제골을 내렸으나 후반 라울 곤살레스의 1골, 페르난도 토레스의 2골을 보며 튀니지를 3-1로 제압

했다.
2연승으로 승점 6을 확보한 스페인은 23일 사우디아라비아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16강행을 확정지었다.
스페인 20일 8분 선제골을 내렸다.
하지만 후반 26분 라울의 동점골과 5분 뒤 토레스의 역전골로 승부에 해기를 박았다.
우크라이나는 23일 베를린에서 열린 경기에서 안드리 루슈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세르히 레브로프, 안드리 셉첸코, 막시 칼리나첸코의 릴레이 골로 사우디를 4-0으로 제압하고 승점 3(1승1패)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는 23일 베를린에서 튀니지와 16강 진출 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는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를 치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주요 경기 전망

2006 독일 월드컵 조별리그 막바지인 22일에는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 C조 1위를 놓고 외나무 다리 대결을 벌인다. 이번 대회 최고 빅매치에서 승리하는 팀이 D조 1위가 유력한 포르투갈과 8강 진출의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있다. 또 D조 탈락이 확정된 세르비아-몬테네그로와 코트디부아르도 유일한 1승을 챙기려는 최종전 승리를 버리고 있다. 관심을 끄는 최후의 대전은 '죽음의 E조'에 속한 4개 팀이 16강행 티켓 두 장을 놓고 벌이는 마지막 혈투다.
이탈리아(1승1무)와 체코(1승1패)가 조별리그 관문을 통과하려는 최후의 일전을 벌이고 가나(1승1패)와 미국(1무1패)도 16강행의 마지막 불씨를 살리려고 올인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조별 리그 최고 빅매치

▲C조 아르헨티나-네덜란드(22일 오전 4시·프랑크푸르트)=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구단 첼시에서 한술밥을 먹고 있는 에르난 크레스포(아르헨티나)와 아르헨 로벤(네덜란드)이 조국의 명예를 걸고 격돌한다.
득점 공동 2위(2골)인 크레스포는 하비에르 사비올라와 투톱을 이뤄 시원한 골 사냥으로 팀의 우승과 득점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심산이다.
네덜란드는 세르비아전에서 중흥무진 그라운드를 누비며 결승골을 뽑았던 로벤이 간판 공격수 윌트 판 니스텔로이(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공격 선봉에 선다.
▲C조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코트디부아

르(22일 오전 4시·뮌헨)=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양팀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마지막 한판을 벌인다.
세르비아 선수들은 아르헨 '0-6 참패' 후 사의를 표명한 일리아 페트코비치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나서의 마지막 경기라 승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맞서는 코트디부아르도 스트라이커 디디에 드로그바를 앞세워 아프리카 축구의 매서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버리고 있다.
▲E조 이탈리아-체코(22일 오후 11시·함부르크)=최고의 죽음의 조에서 승자가 조 1위로 16강행 티켓을 확정짓는다.
이탈리아는 개막전 상대였던 가나를 2-0으로 잠재웠지만 미국에 발목을 잡혀 1-1 무승부를 허용, 조별리그 관문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6강행 벼랑 끝 대결

▲E조 가나-미국(22일 오후 11시·뉘른베르크)=아프리카의 희망 가나와 탈락 위기에 몰린 미국이 벼랑 끝에서 만난다.
가나는 세계랭킹 2위 체코를 2-0으로 물리치는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을 연출해 꺼져 가던 16강행의 불씨를 살렸다.
다만 아시아가 기간과 달리 알리 문타리가 경고 누적으로 뛸 수 없고 간판 공격수 마이클 에시언마저 열로카트 1개를 받은 게 아쉽다. 이에 맞서는 미국은 가나를 잡고 체코가 이탈리아에 진다면 골득실에 따라 16강 진출 가능성이 남아 있어 올인할 수밖에 없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